

2 0 1 2
F A L L
V o l . 3 2

세계 초우량 기업들	COVER STORY	06
향해가까	DREAM SECTION	21
원익	CHALLENGE SECTION	31
원익인이 함께하는 사보	PASSION SECTION	41
	L I F E S T O R Y	50

원익인



創意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변화를 위한 도전을 아끼지 않는 창조적인 원익인이 되자

COVER STORY



COVER STORY	06
기업문화 - 창의	
WONIK NEWS	08
원익 계열사 소식	
SPECIAL EDITION	16
국제반도체대전 2012 i-SEDEX	

Cover Story	06
기업문화 - 창의	
Wonik News	08
원익 계열사 소식	
SPECIAL EDITION	16
국제반도체대전 2012 i-SEDEX	

CONTENTS



원익사보 2012년 가을호 원익인 통권 32호

발행인 조용래

발행일 2012년 10월

발행처 원익

디자인 비즈커뮤니케이션즈 02.517.1901

본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3층

사 보 '원 익 인' 은 한국 간 행 물 윤 리 위 원 회 의 윤 리 강 령 및 실 천 요 강 을 준 수 합 니 다



D R E A M

Discovery of Baduk 22
2012년 여류십단전 시상식 및 제 8기 원익배십단전 개막식

Wonik Business 24
제1회 순천향 국제 내시경 컨퍼런스 개최 조기암, 개복없이 치료

Wonik Business 26
(주)원익큐엔씨 김영수 부장 세정사업 도입 과정

C H A L L E N G E

Wonik Dream Team 32
(주)원익아이피에스 HR TFT 활동 맞춤형 아이피에스 인재육성 우리 손으로 이뤄낸다

Never Ending Change 36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픽사(Pixar) 革新工作所로 불리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Special Edition 38
2012년하반기 리더십 교육 실시

P A S S I O N

Zoom In 42
(주)원익머트리얼즈 야구동호회 저메인믹스 (Germane Mix)

Special Edition 46
신원종합개발(주) 전주 효자동 현장 신원 아침도시 PENT 176 전주의 강남스타일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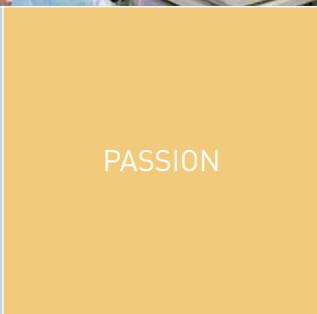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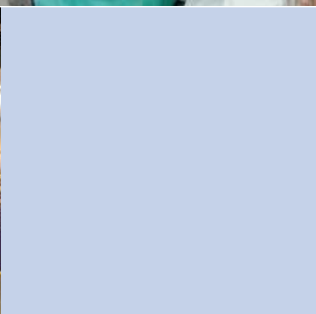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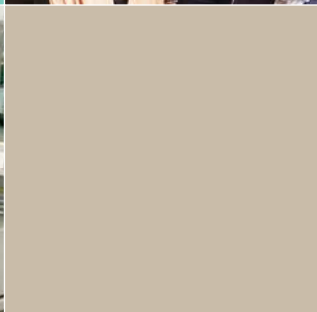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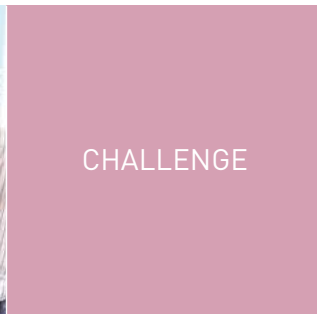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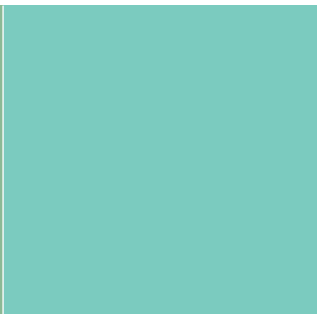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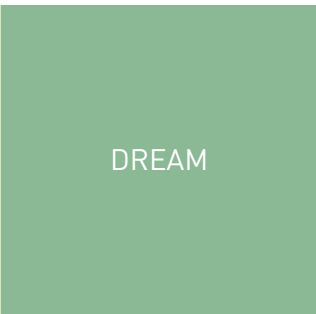
L I F E S T O R Y

Economic Report 50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 전 세계는 경기침체로 고심 중

MUSICAL 52
현존하는 전설의 피아니스트 '라두 루프' 역사적인 첫 내한 공연

Exhibition 53
짧은 예술가의 삶이 빛나는 불후의 반 고흐 명작 다시 한국을 찾는다

Health 54
생활 속에서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뇌 건강 지식을 알아보자





유럽 자동차 운전자에게 악명 높은 기업 교통 단속장비 제작업체 ‘가초미터’ 社의 創 意 와 公 正

네덜란드의 가초미터 社는 1959년 모리스 가초니더스가 세운 직원 수 100여명의 작은 교통단속기 생산기업이다. 유럽 지역 운전자들은 단속에 걸렸다는 표현으로 'I'm Gatsloed' 라고 할 정도다. 50여 년 동안 교통신호 속도위반 측정기를 생산해온 역사를 자랑하는 가초미터 사는 연간 매출 2200만 유로에 순이익만 300만 유로는 넘는 알짜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가초미터 사의 탄탄한 경쟁력은 한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이를 위해 연간 매출의 30% 정도를 과감하게 R&D로 투자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의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초미터 사의 핵심은 창의적인 조직 운영 방법이다. 전체 인력 중 연구개발과 생산팀이 전체 인력의 6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최소인력으로 꾸러가면서 협력회사와 상생의 경쟁력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팀간의 벽을 없애고 대다수의 직원이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가초미터 사의 운영방침 때문이다. 탁 트인 공간에서 다른 부서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가초미터 사에 사장실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직원들과 격이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불만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하는 티모 가초니더스 사장의 모습은 소통 속에서 창의적인 기업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한 살아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창의경영

티모 가초니더스 사장은 “소규모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을 이해하는 기술자’와 ‘기술을 아는 세일즈맨’을 양성할 인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사 시스템이 비용 절감의 효과는 물론 나아가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초니더스 사장이 선택한 것은 직원들 간의 소통이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영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우선 구성원들



간의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국내 기업들도 이제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 소통하는 기업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생산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복지 시설과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한편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자유, 소통을 통한 창의적인 경영, 원익의 새로운 역사를 밝힌다
 지난 한해 과거 3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위하여 힘차게 2012년을 시작한 원익은 자유와 소통, 행복의 새로운 30년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큰 발전을 이룩해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창의적인 경영을 위해서 자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과 함께 발전하는 행복한 원익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원익 이용한 회장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전하면서 끊임없이 변화에 도전하는 것만이 빠른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생존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서 '직원들 간의 소통'과 '행동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임직원 모두에게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한 회장의 당부는 원익 임직원 모두에게 변화의 흐름을 심어주고 있다. 자유, 소통, 행복이 바탕이 될 때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고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시설과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휴식 공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육시설 등을 도입하여 원익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모임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직원들 간의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제 경기의 침체와 함께 국내 경기도 급속도로 침체되는 가운데, 원익의 새로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다. 원익은 '세계 속 초우량 기업, 원익'의 꿈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30년 원익의 새 역사를 밝혀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주)원익

냄새나는 겨드랑이 ‘미라드라이’ 국내 런칭



- 냄새나는 땀으로 인한 생활불편 제거하는 미라드라이 시술

미국과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기 미라드라이는 (주)원익을 통해 지난 7월 12일 식약청 인증을 마치고, 국내에 도입되어 냄새나는 겨드랑이 땀샘제거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수술없이 열에 의한 화학적 분해작용을 통해 땀샘을 없애서 다한증을 치료하는 미라드라이는 작년에 美 FDA 승인을 받은 최신 의료장비이다. 미라드라이 시술은 ‘미라클드라이’의 약자로 이미 시술을 받은 환자나 겨드랑이 다한증 환자들에게 ‘겨드랑이 드라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예인피부과, 초이스피부과, 아름다운나라피부과 등이 동시에 최초로 도입하여 수술없는 다한증 치료의 선두에 서있다. 이외에도 주요 피부과와 성형외과들이 앞다퉈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한 달여 만에 국내도입 초도물량이 완전 소진되었다.

또한, (주)원익은 의료장비의 판매 뿐만 아니라 미라드라이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해 국제최소침습성형학회, 부울경피부미용치료 심포지움 등의 학회에 미라드라이 부스 참가를 통한 B to B 홍보활동과 B to C 마케팅의 일환으로 강남역, 신사역, 신촌, 대학로 등지에서 미라드라이부채 배포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미라드라이 시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도입한 (주)원익은 주로 혁신적인 의료기술에 국내에 보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미라드라이 시술 장비도 작년 미국에서 집계된 벤처투자금 조사에서 피하이식 제세동기 등과 함께 혁신적인 10대 의료기기에 꼽히면서 358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열렸던 미국피부과학회(AAD)와 미국레이저학회(ASLMS)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주)원익

31주년 창립기념일 및 3Q All Employee Meeting

(주)원익은 이번 10월 15일(월) 31주년 창립기념일과 3Q All Employee Meeting을 함께 진행하였다. 창립 31주년을 맞아 장기근속자 포상과 우수사원 시상을 진행하였으며, 3Q All Employee Meeting은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각 사업부별 경영계획에 대한 공유를 통해 임직원 전원이 같은 목표를 갖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려운 경영 및 영업 환경에도 임직원간 신뢰 및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청계산 이수봉 동반 등반을 통하여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원익큐엔씨

원익 QnC 2012년 취업하고 싶은 강소기업 선정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는 기술력, 성장잠재력이 뛰어나고 급여와 직원복지가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취업하고 싶은 강소기업” 선정식을 진행하여 우수한 일자리를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달 6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올해 선정식에서는 원익QnC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2 취업하고 싶은 기업” 선정 사업은 연초 사업공고(중기청)를 실시하여 8월에 선정, 9월에 시상식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심사는 신뢰경영지수와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만족도 (Trust Index©)조사가 병행되어 GWP(Great Work Place)경영 진단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선정으로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외에 원익QnC의 신인도 및 위상 제고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선정에 대하여 박근원 대표이사는 “우리 원익 QnC 임직원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회사를 사랑하며 체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준 결과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든 취업하고 싶은 최고의 기업이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주)원익큐엔씨

직원 만족도(행복도)조사 실시

원익QnC는 기업문화제고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직원만족도(행복지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DGB 경제 연구소에서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임직원 설문조사(Off-Line), 7월 25일까지 직급/사업장별로 그룹을 나누어 개인면담을 진행하였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직원행복지수 설문조사’ 실시 후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과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인면담(인터뷰)’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인터뷰의 주요내용인 행복지수 측정 5개 영역에 대한 보완 질문과 조직가치 측정 6개 영역(리더십, 의사소통, 상호존중, 권한이양, 회사전략, 변화의지)에 대한 보완 질문 및 기타 직원행복지수, 조직가치 향상을 위한 제안 수렴 등을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조사분석 및 보고서 작성이 8월 완료되어 ‘9월 정기교육 및 직원대화의 시간’을 이용하여 조사내용에 대하여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업문화 조성 및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원익큐엔씨

사랑의 헌혈Relay 시행



원익 QnC는 지난 8월 22일 아침 10시부터 구포동 구미 본사와 황상동 세라믹스사업부 2곳에서 “사랑의 헌혈 Relay 행사”를 개최했다. 당사 봉사단체인 “나눔회” 주관의 이번 행사에는 많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헌혈 행사는 매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직원 참여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80여명 임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동참하였다.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헌혈증을 기증 하였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은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되어 소아암, 백혈병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실천 하는 계기”라며 “작년에도 60여명이 헌혈에 참가 하는등 앞으로도 매년 헌혈 및 이웃돕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후 헌혈증을 기부한 이들에게 적십자 기념품과는 별도로 상품을 지급함으로써 이후에도 직원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유도하였다. 원익QnC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에서 헌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이웃사랑 실천 확산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원익 IPS’ 와 함께하는 사랑의 반계탕 나누기

때는 8월 21일(화), 장소는 평택북부복지타운, 종종 걸음으로 반계탕 그릇을 나르는 ‘사우회 회원’들의 이마에 구슬땀이 맺힌다. 원익아이피에스 정명조 전무, 박우정 사우회 회장 등 20명은 평택북부복지타운에서 삼복 무더위에 지친 소외계층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수박 등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원익IPS는 직원들의 자발적 봉사단체 조직인 ‘사우회’를 통해 지역봉사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중앙동 북부노인 복지관 급식, 청소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사우회’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문화체험행사, 연말 불우이웃 김장나누기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은 김선기 평택시장도 함께 ‘반계탕 나누기’ 행사에 참여했다. 김 시장은 “소외계층 지원 무료 급식에 지역의 기업이 적극 나섬에 따라 복지사각에 놓인 주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주)원익IPS와 사우회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SEMICON TAIWAN

원익IPS (대표 이문용, www.ips.co.kr) 는 지난 9월 5일(수)부터 7(금)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렸던 ‘SEMICON TAIWAN 2012’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SEMICON TAIWAN 전시회는 561개의 반도체 /FPD/LED 관련 재료/장비 업체들이 참여하였으며, 총 3만5천여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TSMC, UMC, ITRI 등, 非반도체 부문에서는 Nammatt, Fuzhou Zhao Yuan, UMC, KE Taiwan등의





업체와 미팅을 가졌다. 여러 업체들과의 미팅을 통해 고객들의 Needs 파악, 제품홍보, 시장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해외 전시회 참가는 업계 트렌드 및 고객들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지속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기술로써 한발 더 앞서나가는 기업, 고객만족으로 더 인정받는 기업, 세계 속의 원익아이피에스가 되길 기대해본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전문강사 양성과정



지난 8/29(수)~8/31(금)까지 3일간 원익PS 진위 R&D센터에서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시행됐다. 이번에 양성된 전문강사는 총 19명으로 각 분야에서 과정개발·편찬·강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다가오는 21주년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전임직원이 보는 가운데 정식으로 전문강사 위촉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강사 양성을 시행한 목적은 크게 4가지다.

- ① 기업경쟁력 확보 : 우리의 기술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가르치는 강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무 교육 시행
- ② 핵심인재 양성 : Teaching = Learning²(가르치는 것은 학습효과가 두 배)
- ③ 효과적인 교육비 사용 : 사외강사와 비교하여 교육만족도는 동일, 비용은 90% 감소
- ④ 학습문화 형성 :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를 통해 상시 학습 제도 구축의 기반 마련

상기 4가지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교육은, 삼성전자 인재개발그룹의 전임교수와 SK하이닉스의 BEST 사내강사, 한국학습성과연구소 대표이사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교육생 전원에게는 개인 비디오 촬영을 통한 맞춤형 Report를 제공하고, 본인의 이니셜이 새겨진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 지급된다. 앞으로 회사의 성장을 견인할 전문강사들의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

(주)원익머트리얼즈 무재해 8배수 달성

충북 산업안전관리공단은, 지난 9월 18일, 안전보건공단 충북지부 대강당에서 (주)원익머트리얼즈(대표이사 이준열)에 대해 무재해 8배수('04. 4. 23 ~ '12. 8. 8 - 2850일) 달성으로 표창장과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패를 수여했다.

오늘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주)원익머트리얼즈는 평소 사업장내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위험요소 발굴 및 제거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04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재해 없는 사업장이라는 업적을 이룩했다.

이날 무재해 달성 인증패 수여식에서 이준열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더 높은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졸업자 축하 프로그램 시행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9월 3일 직원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뜻 깊은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이준열 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직접 하반기 졸업 대상자들에게 의미있는 축하선물을 전달하고, 이들과 즐거운 대화의 장을 함께 하였다.

올해 최초로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진행되며, 이번 간담회는 상반기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된 자리이다. 졸업이라는 뜻 깊은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는 (주)원익머트리얼즈 재직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족과 같은 친화적인 분위기 속에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물론, 원익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사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를 갖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졸업자 축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유익한 기업문화 프로그램들로 회사 발전을 위해 조직 융합을 시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신원종합개발(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감사패 수여식 실시 (2012. 08. 17)



신원종합개발(주)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림학사의 원활한 운영관리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월 1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성림학사는 2008년 12월말 신원종합개발(주)이 BTL사업으로 준공하고 2009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사업장으로 올해로 4년째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이번 감사패 수여식을 통해 신원종합개발(주)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갈 것을 다짐했다.

(주)위닉스

기업문화 추진과제 '소통'에 관한 교육



위닉스는 지난 7월 9일(수)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소통에 대한 개념 및 조직활성화를 위한 소통스킬에 대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사내 식당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27명이 참석하여 소통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게임을 통해 알아 나갔으며,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위닉스는 올해 기업문화 추진과제 중 '소통' 테마를 중점 추진아이템으로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팀장 가족과 CEO 가족과의 저녁식사를 통한 진솔한 대화 속에 가족과 회사간의 벽을 허물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조직 내부의 상하간 소통을 위해 상반기에는 건물 복도에 경영, 품질, 핵심지표 등을 알려나가는 게시판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 젊은 인재들과의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위닉스는 ON/OFF-LINE을 통한 소통경영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번 소통을 주제로 한 교육 또한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관리자들과의 소통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자 진행 되었다. 위닉스는 앞으로 현재 봉착한 경영위기를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조직을 젊고 탄탄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향후 위닉스만의 기업문화를 완성하여 뼈 속 깊이 원익DNA를 심어나갈 것이다.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임직원 가족행사 개최



지난 9월 13일(목), 원익투자파트너스(주)는 『기업문화-행복』의 일환으로 회사발전을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는 임직원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야외 바베큐 행사를 개최하였다. 약 40여명의 임직원 가족들이 참석하였으며, 아이들을 위한 영화상영과 도심 속에서 즐기는 야외바베큐의 색다른 분위기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원익투자파트너스는 앞으로도 임직원 및 가족구성원들간의 화합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한마음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원익투자파트너스는 매년 정기적으로 임직원 가족들 모두와 함께 즐기는 바베큐 파티를 진행해 오고 있다. 원익투자파트너스는 바쁜 일상에서도 임직원 및 가족들간에 돈독한 신뢰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모임을 기획, 진행하여 금융업계에서 이직율이 낮고, 만족도 높은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국제반도체대전 2012 i-SEDEX

국내 최대의 반도체 산업 전시회인 “국제반도체대전(i-SEDEX)”이 10월 9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됐다.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총 6개국 160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소개했다. 원익은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큐엔씨, (주)원익머트리얼즈, 3개사가 참가해 뛰어난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원익의 빛나는 기술력을 확인한 자리**

반도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성과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이번 전시회에서 원익은 국산화를 이뤄낸 뛰어난 기술력과 최

고 성능의 장비를 소개하며 그간의 성과를 마음껏 보여줬다. 원익은 참가한 3개 계열사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혁을 입구에 배치하고 각 계열사 별 특징이 잘 드러난 제품들을 함께 선보이는 등 원익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치하

였다. 창조와 혁신, 변화를 추구하는 푸른색과 깔끔한 흰색이 조화를 이룬 부스는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전시회 첫날에는 이용한 회장을 비롯하여 (주)원익아이피





에스 이문용 부회장, (주)원익큐엔씨 박근원 사장, (주)원익머트리얼즈 이준열 사장 등 각 계열사 대표들이 직접 부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반도체대전에 참가한 원익 3개 계열사들은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최신 기술을 확인하는 한편 문의를 해오는 바이어와 방문객들에게 제품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홍보에 여념이 없어보였다. 최근 반도체 관련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발전과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원익은 어려운 반도체 경기 속에서도 꾸준히 관련업체와 방문객들의 문의와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속적인 신기술 적용

장비 국산화 경쟁력을 키워

반도체 및 TFT-LCD 공정용 특수가스 전문제조 업체 (주)원익머트리얼즈는 국내 최초로 고순도 NH₃(암모니아), NO(일산화질소), BF₃(삼불화붕소)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국내 유일의 불소(F₂), 염화붕소(BCL₃) 혼합가스 등을 포함해 100여종에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주)원익머트리얼즈는 그동안 NH₃, N₂O, CO, PH₃ 등의 고순도 및 특수가스와 수소, 산소, 헬륨, 아르곤 등의 혼합가스를 제조 공급하면서 특수가스업체에서 인정을 받아왔고 지난해 말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저메인가스(GeH₄) 수요에 대비한 생산 체제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이번 전시회에서 반도체, LED, FPD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고순도 특수가스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장치를 도표와 그림으로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세계 최초의 ALD (Atomic Layer Deposition) 시스템이 적용된 반도체 공정기술과 태양전지(Solar Cell), 8세대용 드라이에처(Dry Etcher, 건식 식각장비)와 같은 핵심기술은 물론 MAHA-SP의 후속모델인 MAHA-MP(PE-CVD)와 개발과 양산을 성공적으로 마친 AKRA(Metal-CVD), Total Gas Solution 구현을 위한 Gas cabinet, purifier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품을 소개했

다. AKRA는 기존 장비보다 생산성이 월등히 향상된 제품으로 고객사에서도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 300mm 장비는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LED 관련 산업에서 빠르게 적용하였다. 최근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신기술 특허를 꾸준히 등록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주)원익큐엔씨는 세라믹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주)원익큐엔씨는 국내 퀴즈웨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는 명실상부한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 3대 퀴즈웨어 공급업체로 손꼽힌다. 비산화물 퀴즈웨어 생산기술이 뛰어난 (주)세라코를 인수하며 세라믹스에 대





한 투자를 늘리고 다양한 제품과 생산력을 갖추게 됐다. 이번 전시회에서 이번 전시회에서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내열성, 내구성, 내식성이 뛰어난 퀴즈웨어 및 세라믹스 제품들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반도체 생산공정 조건이 난해해질수록 고집적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한 (주)원익큐엔씨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올해 중반부터 세정사업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등 탄탄한 기술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현재 경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예년에 비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컨퍼런스, 세미나 등 업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참여하는 장비상용화 홍보관은 반도체 장비상용화 사업 2단계 과제 성과 발표회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로 43회째를 맞는 2012 전자정보통신산업대전(KES)과 함께 치러져 3D·OLED TV, 첨단 스마트폰, 디지털 방송장비 등 최대 볼거리를 지닌 국내 최대의 IT 대전으로 거듭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글 김도용 · 사진 최우진



DREAM



22 Discovery of Baduk
2012년 여류십단전 시상식 및
제 8기 원익배십단전 개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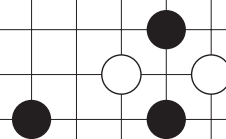
24 Wonik Business
제1회 순천향 국제 내시경 컨퍼런스 개최
조기암, 개복없이 치료



26 Wonik Business
(주)원익큐엔씨 김영수 부장
세정사업 도입 과정

2012년 여류십단전 시상식 및 제 8기 원익배십단전 개막식

제8기 원익배 십단전 개막식이 10월 17일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대회를 후원하는 원익의 차동익 대표이사를 비롯해 공동 주최사인 경향신문사의 정동식 부사장, 바둑TV 김계홍 사장과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기원 양재호 사무총장, 프로기사 등 200여명이 참가해 여덟번째 십단전의 개막을 축하했다.

경향신문의 정동식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회는 바둑대회 사상 처음으로 액자대회 2012 원익배 여류십단전이 모두의 관심과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치르며 바둑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향신문은 한국 바둑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바둑동맹들을 육성하는데 모든 정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액자대회’란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액자소설’처럼 대회 안에 또 다른 대회가 있는 형식을 말하는 조어(造語)다.

또한 원익 차동익 대표이사도 “원익배 십단전이 명품기전이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인기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기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많은 바둑팬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원익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한편 본 대회 시작 전 액자대회로 열린 ‘2012 원익배 여류십단전’ 시상식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2012 원익배 여류 십단전’은 지난 9월



10일 예선을 시작으로 조혜연 9단이 결승에서 김혜민 6단을 꺾고 초대 십단 우승자가 됐다.

15일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한국기원 1층 바둑TV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결승대국에서 랭킹시드를 받아 본선 8강전부터 출전한 조혜연 9단은 고주연 2단, 김윤영 3단을 차례로 물리치고 예선전부터 강호들을 물리치며 결승에 오른 김혜민 6단에게 163수만에 흑으로 불계승하며 초대 여류십단에 등극했다.

2005년 4월 9일 윤영선 4단을 누르고 제10회 여류국수전에서 우승한 이후 6년7개월만이자 통산 4번째 우승이다.

1997년 4월 입단한 조혜연 9단은 만 11세 11개월(1985년 6월 7일 생)로 조훈현 이창호에 이어 역대 최연소 3위로 프로가 된 천재형 기사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천적 루이나이웨이 9단(18승 35패)의 벽과 학업병행 등으로 우승 3회 준우승 14회로 기대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지난해 루이나이웨이가 중국으로 돌아가 공백이 된 여제의 자리에 오르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한편 여자랭킹 5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며 정상급 기량을 보여준 김혜민은 생애 첫 우승의 기회를 잡았으나 조혜연의 벽에 막혀 분루를 삼켰다. 그러나 우승-준우승자에게 주는 시드권을 받으며 처음으로 원익배 십단전 56강 본선투너먼트진출에 성공했다.

원익배 십단전을 후원하고 있는 원익에서 한국여류바둑 활성화를 위해 만든 이 대회는 ‘여류국수전’, ‘여류명인전’, ‘여류기성전’ 등 기존의 여류프로대회와는 차별화 된 독립된 대회형식을 취하면서도 본대회인 ‘원익배 십단전’과 병렬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많은 바둑팬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2 원익배 여류십단 본선 진출자들은 제8기 원익배 십단전 예선전 참가자격이 주어지며 우승-준우승자는 원익배 십단전 본선(56강 토너먼트) 시드를 받는다.

조혜연은 우승상금으로 이날 시상식에서 1000만원을 받았다.

본 대회인 원익배 십단전은 217명이 예선전에 참가했으며 49명의 예선 통과자와 본선시드 7명(전기 4강 : 최철한, 강동윤, 홍기표, 강윤택, 후원사 시드 : 서봉수, 여류십단전 우승·준우승 : 조혜연, 김혜민) 등 56명의 본선 진출자들은 피라미드 토너먼트로 결승 진출을 다



투며, 타이틀 결정전은 결승3번기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전기 대회에서는 최철한 9단이 강동윤 9단에게 2-0로 승리하며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오늘 열린 예선전에는 이세돌 9단과 이창호 9단, 조훈현 9단, 유창혁 9단등 호화 멤버가 총 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원익배 원년 우승자인 이창호 9단은 조인선 2단을 이기고 예선 결승에 진출했고 이세돌 9단은 최원용 6단을, 조훈현 9단과 유창혁 9단은 각각 박성수 4단, 유병호 9단을 제치고 예선결승에 올랐다.

한편 영재입단대회 1호인 신민준 초단(13세)도 이영주 초단을 누르며 프로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경향신문사와 (주)바둑TV가 공동 주최하고 원익이 후원하는 제8기 원익배십단전은 총규모 4억 5천만원, 우승상금은 5,000만원, 준우승상금은 2,000만원이다.



조기암, 개복없이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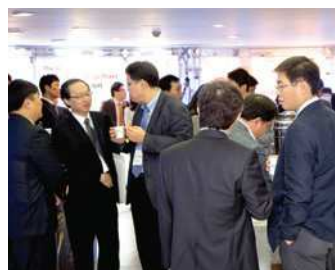
지난 9월 15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동은대 강당에서는 (주)원익의 의료기기 브랜드 펜탁스(PENTAX)가 후원한 '제1회 순천향 국제 소화기내시경 컨퍼런스'가 열렸다. 순천향대학교병원 소화기병센터는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을 알리고 공유하여 보다 양질의 조기 위암, 대장암 치료 혁신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번 순천향 국제 소화기내시경 컨퍼런스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 소장인 조주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의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한 정보 공



유와 함께, 조기암 환자에게 ESD 기술을 라이브 서저리(Live Surgery)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독일 등 외국인 교수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조주영 교수는 “이번 순천향 국제 소화기내시경 컨퍼런스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첨단 의학으로 아직까지 보험도 안 되어 있는 신기술들”이라고 밝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보편화되기



는 힘들겠지만 치료방법이 3~5년에 지나서 자리를 잡으면 첨단 양질의 의료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 교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수준을 제공하는 것, 대



한민국의 소화기 내과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목표임을 밝히고 앞으로 매년 내시경 분야의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
●





조주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2000년 초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을 처음 국내에 도입하였고, 2009년에 위암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노즈에 성공하는 등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최고의 권위자로 손꼽히고 있다. 의료기기 전문업체 (주)원익은 이번 컨퍼런스의 메인스폰서 펜탁스와 독점계약을 맺고 내시경 장비를 국내에 판매 공급하고 있



EPK-i

다. 현재 주력 제품인 EPK-i는 세계 최초 125만 화소의 고화질을 구현했으며, 다양한 색 변환이 가능한 아이스캔(i-scan)기능을 통해 몸속 기관 및 세포의 원천 색과 모양에 가장 가깝게



영상을 변환해 병변을 돋보이게 하는 등 진단의 정확성을 높여 최고의 성능을 지닌 하이엔드급 내시경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원익의 메디컬사업부 이창진 상무는 “현재까지 순천향대학교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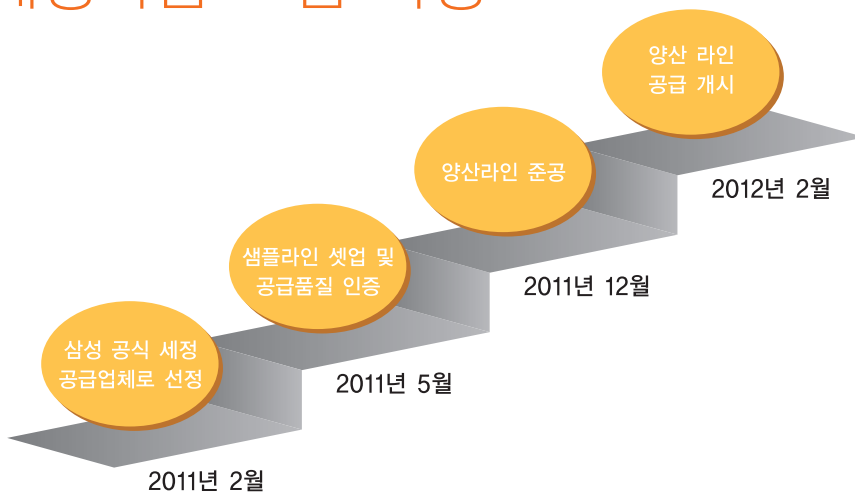
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 내시경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양지병원 등 종합전문병원에도 꾸준히 공급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글 김도용 · 사진 최우진



세정사업 도입 과정



2010년대 후반 반도체 회로선폭의 감소로 인해 Particle 및 이온에 대한 오염이 대두되어 기존 자체 세정품들에 대한 전문세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라인 공간 확보를 위해 반도체 라인 자체 세정을 진행하던 품목들을 외주 세정업체로 이관하기 시작하여 2011년 부터 Ion Implant 공정과 Diffusion 공정제품이 외주세정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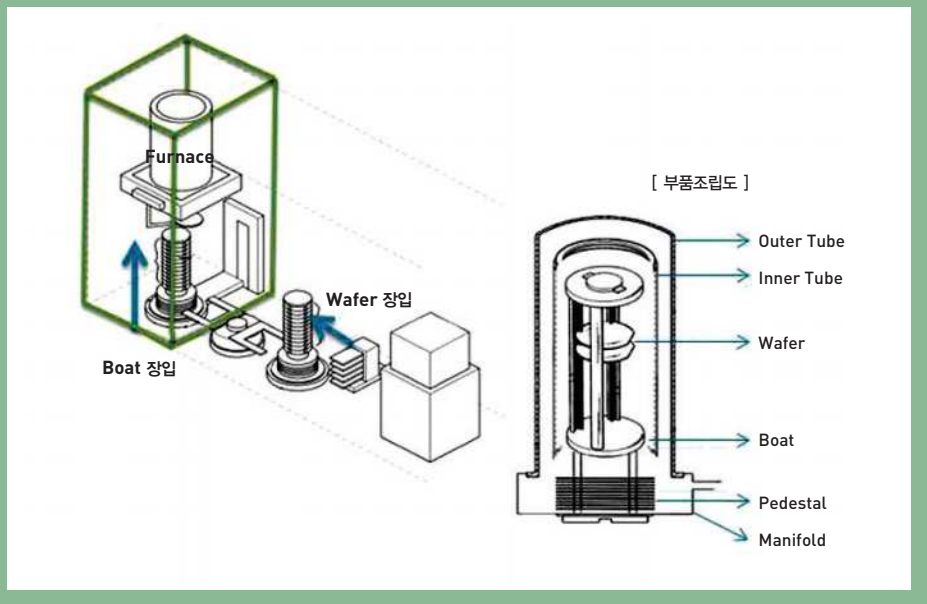
세정사업부는 2011년 5월에 infra를 구축하여 Test를 진행 후 2011년 11월 양산라인을 준공하여 2012년 2월 양산품을 공급하



세정공정의 이해



설비 구성 및 Parts 구성



기 시작하였다.

Diffusion(확산공정) 공정이란?

자사 세정 반출품목은 Diffusion 공정 중 LP-CVD 공정으로 고온과 반응성Gas를 이용하여 Wafer 표면에 Nitride, Oxide, Poly Silicon Layer를 형성시켜주는 공정이다.

반도체 공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공정에서 도포하고자 하는 물질이 세정에서는 오염물로 존재한다. 또

한 Quartz 제품은 불산에 식각이 되는 제품으로 모재의 식각을 최소한으로 공정을 설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최적의 cleaning Process 구축

제품 표면에 증착되어 있는 오염물은 질화물, 산화물, Poly Silic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2 Chemical(질산+불산+초순

수)과 HF수용액을 이용하여 세정을 진행한다.

세정 시 주로 불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F 성분의 경우 주기율표 상에 열거되어 있는 원소들 중에 가장 반응성이 큰 것으로 전기 음성도가 4.0이고, 산소의 경우 전기음성도가 3.5인 점을 이용하여 F 분위기로 노출되었을 경우 F성분이 Si와 O의 결합을 끊고 Si

와 F가 결합하여 SiF4(Silicon Tetra fluoride) 또는, H2SiF6(Fluorosilicic Acid)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Chemical 세정 시 반응식

또한 Chemical 적용 시간은 Quartz의 Etching Rate를 측정하여 최적의 조건을 찾아 모재 식각을 최소화로 인해 제품의

반도체 공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의 종류

	Nitride 공정	Poly 공정	Oxide 공정	
반응식	$3\text{SiCl}_2\text{H}_2(\text{g}) + 4\text{NH}_3(\text{g}) \downarrow$ $\text{Si}_3\text{N}_4(\text{s}) + 6\text{HCl}(\text{g}) + 6\text{H}_2(\text{g})$	$\text{SiH}_4(\text{g}) \downarrow$ $\text{Si}(\text{s}) + \text{H}_2(\text{g})$	HTO 공정	$\text{SiH}_2\text{Cl}_2(\text{g}) + 2\text{N}_2\text{O}(\text{g}) \downarrow$ $\text{SiO}_2(\text{s}) + 2\text{N}_2(\text{g}) + 2\text{HCl}(\text{g})$
			TEOS 공정	$\text{Si}(\text{OC}_2\text{H}_5)_4(\text{g}) \downarrow$ $\text{SiO}_2(\text{s}) + 4\text{C}_2\text{H}_4(\text{g}) + 2\text{H}_2\text{O}(\text{g})$
오염물	Si ₃ N ₄	Si	SiO 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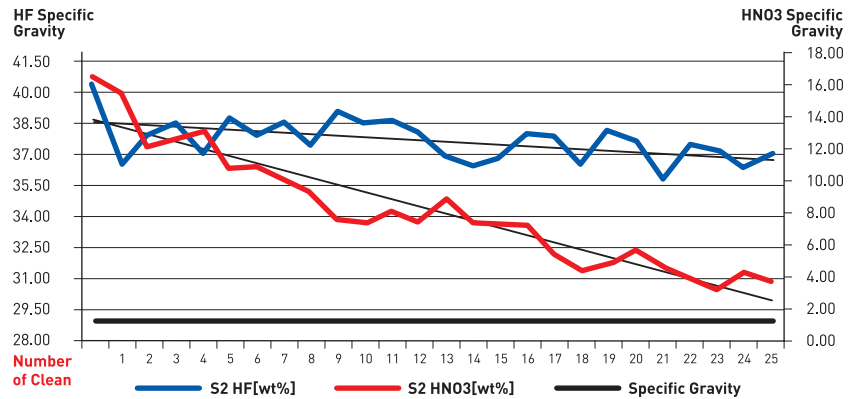


Life Time을 증가시켰다.

하단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불산은 세정 횟수에 따라 불산의 농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표면 Roughness의 변화도 확인 할 수 있어 최적의 세정 프로세스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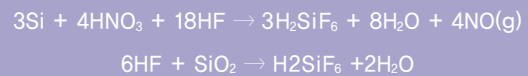
또한 누적된 재 세정에 의한 테이터로 세정 Process를 구축하여 최상의 Chemical 적용 시간을 산출하여 최적의 Process를 구축

※ Etching data



Chemical 세정 시 반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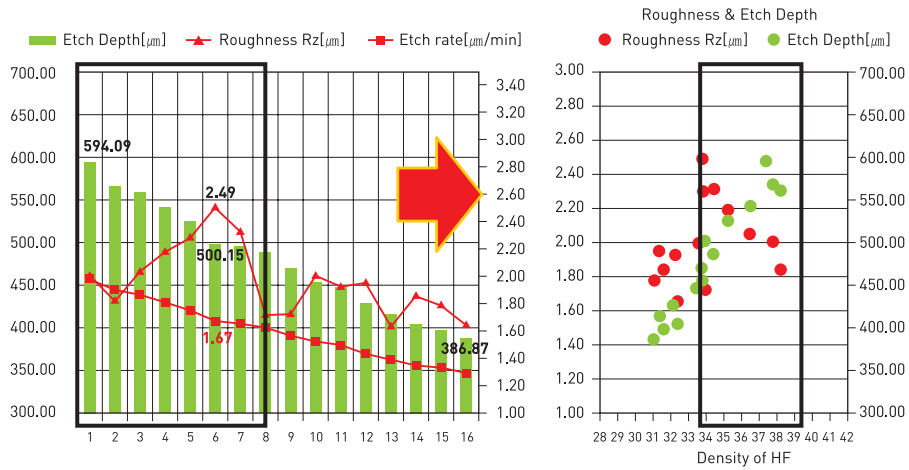
S2 Chemical 적용 시 화학반응식



기타 Metal 성분 제거 시



※ Etch depth variation



하고 있다.

세정 발전 분야 (세정 시장 전망)

국내 세정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00억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Display부분의 OLED물량의 증가로 인해 세정시장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 세정Infra는 반도체 Diffusion위주로 편향되어 있어, 반도체의 다른 공정세정 가능한 종합적인 세정 System 구축 및 Display 분야 세정도 진행하여 세정 전문회

사로써의 이미지를 구축 할 것이다.

Display 부분의 경우 OLED가 시장 증가로 인해 세정물량의 증가가 같이 이루어지며, 고가의 유기화합물을 사용함으로 세정 시 유기화합물 회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가의 기능성 재료에 대한 세정도 이루어 질 것이다.

원익QnC는 기본 세정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면 처리 기술도 (Anodizing, Thermal Spray Coating) 접목하여, 세정의 Total Solution을 구축할 것이다.



CHALLENGE



32 Wonik Dream Team
주원익아이피에스 HR TFT 활동
맞춤형 아이피에스 인재육성 우리 손으로 이뤄낸다



36 Never Ending Change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픽사(Pixar)
革新工作所로 불리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38 Special Edition
2012년하반기
리더십 교육 실시

맞춤형 아이피에스 인재육성 우리 손으로 이뤄낸다

최근 (주)원익아이피에스에서는 HR TFT 활동을 마치고 직무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기르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주)원익아이피에스 인사팀은 회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장비업계로는 최초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효율적인 전문가로 거듭난다**

HR TFT의 총 책임을 맡은 인사팀 함장길 부장은 “인사의 모든 활동은 경영목표달성과 성과 창출, 개선을 위한 전략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진행한 두 가지 프로젝트의 목표 또한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어떤 일을 하던지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듯, HR이라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라는 숲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사팀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단순한 직무분석과 직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 작업에 그치지 않고 (주)원익아이피에스의 인재상을 프로젝트에 투영시킴으로써 조직의 시너지를 향상시키고 회사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립하고자 했다. (주)원익아이피에스의 자유, 소통, 행복의 3가지 핵심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해 새로운 인재상을 도출하고 정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원익의 핵심가치 내재화로

개인과 기업의 성장 동력마련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주)원익아이피에스 직원이라면 모두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과 함께 직급별로 겸비해야할 리더십 역량과 직무별로 필요한 역량

을 정리해 3명 인재상을 도출해냈다. 실행력이 강하고, 상호협력이 강하며, 도전정신이 강한 이른바 “3 Power People”(3명 人才)를 목표로 원익의 기업가치인 자유, 소통, 행복을 내재화 시키는 기초 작업에 그 주안점을 두었다.

지난 9월로 마무리된 프로젝트는 “61개의 직무와 그에 대한 직무매뉴얼”, “공통/리더십/직무 역량 39개”, “역량기반교육체계” “17개의 전문가 유형 정의서” “교육과정명세서”를 결과물로 만들어냈다. 힘들게 만든 자료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이승연 대리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경력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덕에 많은 직원들이 혜택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회사와 개인이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기용 과장도 “이번 프로젝트 결과물을 기술, 관리, 영업 파트별 인재





채용 기준으로 활용하여, 면접 단계에서도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 파트별로 어려운 점을 공감하는 등 현업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아졌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인사팀의

도전은 계속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는 채용, 배치, 평가, 보상, 교육 등 인사제도의 모든 부분에서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고 있다.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인사팀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인사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기 때문이다. 이미 연간교육훈련 체계의 정비와 SFD부문(Display, Solar, TGS)의 전문가 양성 체계 구축, 결과물에 대한 E-HRD 구축 등이 2013년 계획으로 잡혀있다고 함장길 부장은 전했다.

이승연 대리는 “40~50명에 이르는 대기업의 인재개발원과 비교해서 단 2명의 교육담당자로 그들과 동일한 수준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데는 모든 임직원들의 과감한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프로젝트 결과물이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보내달라.” 힘주어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취재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이라는 원익의 기업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함장길 부장과 인사팀은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안을 수립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업에 최적화된 인력을 공급하고 양성해 모든 사업부를 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갈 것을 약속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지만, 이를 잘 활용하고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평가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발, 강사육성과 교재편찬 등 진행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보여주신 이문용 부회장과 바쁜 시간임에도 스케줄 조정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많은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글 김도웅 · 사진 조인기



혁신공작소

革新工作所로 불리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Pixar)는 루카스필름(LucasFilm)에서 1979년부터 활동해 오던 컴퓨터 그래픽 부서를 1986년 애플 설립자 스티브 잡스가 인수하면서 독립적으로 설립한 컴퓨터 애니메이션 회사다. 미국 캘리포니아 에머리빌에 위치한 픽사는 장편 영화 작품으로는 최초의 풀 CG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로 전 세계에서 3억 6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등 이후 현재까지도 작품마다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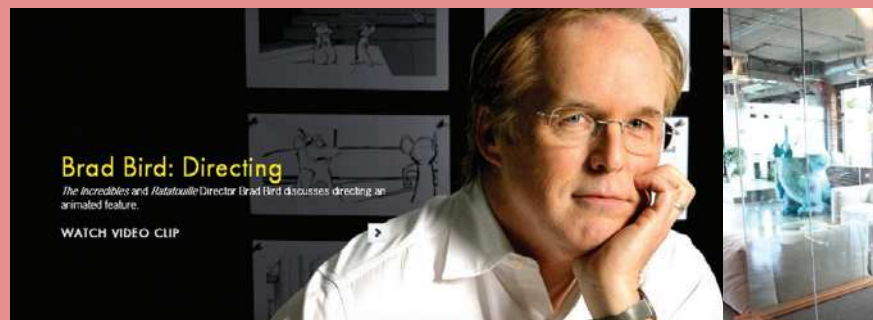


1985년 애플에서 쫓겨났던 스티브 잡스가 10여년 만에 애플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도 픽사의 '토이스토리'가 대박을 터뜨린 데 힘입은 바 크다고 평가할 정도인데, 이 같은 픽사의 성공에는 '혁신공작소'라 불리는 명성처럼 자유롭게 일과 놀이를 함께하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픽사 대학과 실패의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픽사의 경영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픽사 대학은 약700여 명의 조직원들이 조직 내 장벽을 없애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원활히 교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평등한 위치에서 함께 배울 수 있다. 엘리스 클라이드먼 학장은 “대학 하면 떠오르는 즐거운 이미지 속에서 즐겁게 교육을 받다 보면 직원들은 좀 더 창의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픽사 대학은 픽사에 있어서 ‘영감 그 자체’라고 강조한다.

픽사 대학에서는 글쓰기에서부터 시작해 회화, 조각, 영화 제작에 이르기까지 약100개가 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이 중이며, 픽사 내부직원들은 일주일에 최소 4시간씩 교육을 받고, 교육의 참여는 업무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경영 방침도 남다르다. 픽사에서는 중간 간부에게 많은 재량권을 넘기고 있다. 에드 캣멀(Edwin Catmull) 픽사 CEO는 “중간 간부는 보통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사의 통제 아래 있고 싶어 한다”는 통념에 맞섰다.”고 강조했는데, 중간 간부는 누구보다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낫다'는 것이 에드 캣멀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충분한 재량권으로 탄생한 작품은 2~3개월 주기로 완성된 작품을 분해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벌인다. 피드백이 반복될수록 작품 수준이 나아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피드백 이후 부검 과정에서 작품 제작 과정에서 시도한 것 중 '반복하고 싶은 것 5개'와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5개'를 각각 꼽는데, 문제가 됐던 부분을 바탕으로 새 작업에서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픽사에서는 실패를 인정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압박보다는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를 유도한다.

1995년 토이스토리가 대성공을 거뒀지만 2년 뒤 내놓은 '토이스토리2' 기대에 못 미쳤다. 픽사는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이스토리3'에 매진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에드 캣멀은 "실패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전통이 픽사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주요 촉매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픽사는 1995년의 '토이스토리(Toy Story)'를 비롯, '몬스터주식회사(Monster, Inc.)' '니모를 찾아서(Finding Nemo)' '인크레디블 가족(Incredibles)' '카스(Cars)' '라따뚜이 (Ratatouille)' '월·E(WALL-E)' 등 거의 전 작품이 높은 완성도에 힘입어 흥행에 성공을 거뒀다. 2009년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업(UP)'의 경우는 관람객 및 매출 규모에서 역대 2위 수준에 이를 만큼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픽사의 기업 가치와 경영 방침과 함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온 픽사 대학.

두 요소의 시너지 효과로 픽사는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로 지금도 거듭나고 있다.

글 김도웅



2012년 하반기 리더십 교육 실시

2012년도 상반기 실시된 “신규입사자 과정, 팀장 리더십 과정, 임원 리더십 과정”에 이어 9월 CEO 리더십 과정과 10월 임원 리더십 과정, 팀장 리더십 과정 등 3개 과정이 강원도 평창 숲속의 아침 펜션에서 실시 되었다.

9월 실시된 CEO 리더십 과정은 각 계열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 13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2013년도 국내외 경제전망을 비롯하여 CEO 레벨에서의 키맨 네

트워크 교육과 협상 과정 등이 실시 되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익 기업문화 정립 및 내재화를 위한 프로젝트 진행 사항 등이 공유 되었으며 최고 경영자인 이용한 회장도 직접 교육장을 방문하여 교육 참석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였다.



10월 실시된 임원 리더십 과정은 상반기 실시된 과정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 되는 교육으로 상반기 과정에 참석하지 못한 인원 24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임원 리더십 과정에서는 상반기 교육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대 마케팅 트렌드 및 마케팅 전략, 협상과정 등을 비롯해 현업의 실무 리더로 재직하고 있는 임원으로서 가져야 할 전반적인 리더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졌다. 교육 3일차에는 CEO 교육과 마찬가지로 최고 경영자인 이용한 회장이 직접 교육장을 방문하여 원익 기업문화 실천을 위한 핵심가치인 ‘자유’, ‘소통’, ‘행복’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참석 임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기업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후 만찬을 함께 하며 교육참석자 분들을 격려했다.



위한 훌륭한 리더 (Great Leader)의 요건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 요소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CEO 리더십 과정

9월 19일부터 2박 3일 과정으로 실시된 CEO 리더십 과정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하에서의 도전적 경영환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경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현업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미래 환경 예측 및 전략적 사고 등 다양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협상 교육을 통해 과거의 협상 전략에서 탈피하여 Win-Win 할 수 있는 신개념의 협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과 협상 실습이 이루어 졌다.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CEO 리더십 과정은 불황 속에서의 지속성장 및 위대한 기업 (Great Company)을

임원 리더십 과정

10월 9일부터 3박 4일 과정으로 실시된 임원 리더십 과정에는 각 계열사 임원진 24명이 참석 하였으며, 밀리언셀링 전략/현대 마케팅 트렌드 등의 마케팅 전략과정과 임원으로서 가져야 할 신뢰의 리더십과 성과 창출을 위한 리더십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CEO 과정에 이어 협상 교육이 심도 있게 다루어 졌다. 각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 포지션에 있는 임원을 위한 협상 과정은 실제 사례를 통한 협상 실습도 함께 진행하여 교육이 끝나고 현업에 돌아가서 즉시 실행이 가능한 실행력 높은 교육 과정으로 평가 되었다.

또한 기업문화 관련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회사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노력, 자유/소통/행복이라는 핵심가치 실천 방안 등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지속성장 및 위대한 기업 (Great Company)을 위한 훌



룡한 리더 (Great Leader) 의 요건 등을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 되었다.

특히, 여러 계열사의 임원들과 팀을 형성하여 각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과제 해결을 위한 역할 수행 등 이론강의 보다는 실습을 통한 실행력 강화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평소 만날 기회가 없었던 타 계열사 임원들과의 Networking 등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팀장 리더십 과정

10월 23일부터 3박 4일 과정으로 실시되는 팀장 리더십 과정에는 각 계열사 팀장급 직원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강화를 위한 소통의 리더십/코칭 리더십/행복을 이끄는 리더되기 등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2012년도 원의 기업문화의 Key-word 로 강조하고 있는 자유/소통/행복 실현을 위한 내용과 창의/열정이라는 주제와 교육 참석자들 간의 친목 및 네트워크 향상을 위해 별도 Outdoor Activity 도 병행하여 진행될 것이다.

9월, 10월 실시된 임원 리더십 과정 및 팀장 리더십 과정을 끝으로 2012년도 리더십 교육 과정은 모두 종료 되며, 2013년도에도 신규입사자 과정을 비롯하여 각 계열사 계층별 리더십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PASSION



42 Zoom In
(주)원익머트리얼즈 야구동호회
저메인믹스 (Germane Mix)



46 Special Edition
신원종합개발(주) 전주 효자동 현장 [신원 아침도시 PENT 176]
전주의 강남스타일을 열다

야생야死 ! 뜨거운 열정을 마운드에 쏟는다

가을은 언제나 야구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계절이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플레이 오프에 진출하고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꿈꾸며 많은 야구팬들이 야구장을 찾지만 자신들만의 야구를 위해 주말을 할애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야구동호회 「저메인믹스」가 바로 그들이다.





박야조. (웃음)”

야구를 할 수 있다는 즐거움 때문일까? 9명의 선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1명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공격부터 하면 괜찮다”면서 활짝 웃는다. 임우순 총무는 “리그 경기지만 직장

9월 15일 토요일 아침. 오전 10시로 예정된 경기를 앞두고 저메인믹스 회원들은 분주하게 몸을 풀었다. 올해 들어 유독 잦은 비 소식에 경기가 계속 연기되면서 경기감각이 많이 무뎠기 때문이다. 저메인믹스 동호회의 임우순 총무는 바쁜 손놀림으로 야구 장비들을 훑기면서 출전선수 명단을



인들이 모여서 하는 경기인 만큼 어느 정도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공격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야 한다. 아니면 몰수패.”라고 웃어 보였다.



저메인믹스는 (주)원익머트리얼즈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동호회다. 이수환 저메인믹스

작성하고 있었다. 분주한 모습에서도 얼굴만은 밝았다.

“너무 오랜만에 경기를 해서 경기감각 유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경기를 한 번 밖에 못했어요. 최근 들어 한 달에 한 번 경기는 했나? 그래도 열심히 해





동호회장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야구로 전국을 뜨겁게 달구던 2008년에 창단됐다.”면서 “그 이전에도 야구에 관심이 있는 직원끼리 뭉쳤지만 그해 야구 붐이 불었고, 때마침 동호회를 지원한다는 회사의 방침에 힘입어 동호회를 만들었다.”고 팀창단 배경을 설명해주었다.



2008년 이인복 과장과 박준영 감독, 신동헌 코치 중심으로 탄생한 저메인믹스는 창단과 동시에 오창 1부 리그인 서원리그로 당차게 출발했다가 쓴 잔을 들이키고, 이후 대대적인 팀정비를 통해 2010년부터 2부 무심리그에 참가해 현재까지 경기를 이어오고 있다. 저메인믹스가 이날 상대한 팀은 넥스아이슬



루션. 경기 전 비슷한 실력의 팀으로 평가했던 것과 달리 오랜만에 경기에 나선 저메인믹스는 타격에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다. 경기 중반 이후 몸이 풀린 저메인믹스가 김민수 대리의 홈런과 연속 안타에 역전승을 노렸지만 경기 막판 넥스아이슬루션에게 끝내



기 안타를 맞고 7:8 케네디 스코어 패배를 맛봤다.

홈런의 기쁨을 승리까지 연결하지 못한 김민수 대리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이날까지 3경기를 소화한 신입 김민수 대리는 “이번 경기 전에 7타수 7안타 10할의 타





올을 기록했는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팀 4호 홈런을 만족한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이성우 대리의 추천으로 ‘보는 야구’에서 ‘하는 야구’가 됐다는 그는 “아직 우승까지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상위권 도약은 해보고 싶다.”며 새내기다운 포부를 밝혔다. 무심리그 투수부문에서 탈삼진 기록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박준영 대리는 “토요일에 투구하면 다음날 어깨가 정말 아프지만 기분은 좋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비록 이날 경기는 졌지만 저메인믹스의 분위기는 언제나처럼 화기애애하다. 팀의 코치를 맡고 있는 신동현 주임은 “주차장 옆 회사 공터에서 캐치볼 연습도 하면서 항상 야구를 즐긴다.”면서 “이기는 것보다 야구가 좋아서 함께 모이는 자체가 좋은 게 아니냐.”고 이야기한다. 연말에 우수선수와 공로선수에게 상품권을 증정하여 야구 장비 구매를 활성화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농아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야구팀인 충주 성심야구부와 친선경기를 갖고 그간 모아온 회비 100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저메인믹스는 연말에 우수선수와 공로선수를 위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동호회 활성화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기 있다.

이수환 동호회장은 “10월에 정읍으로 전지 훈련 겸 단합대회를 가서 그곳 야구팀과 친선경기를 가질 계획이다. 저메인믹스에서 자유롭게 야구를 즐기면 서로 빨리 친해지고 회사 적응도 빠른 만큼 서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강조하고 “2011년 우수동호회인 저메인믹스에 대한 많은 참여와 지원,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저메인믹스는 새내기 모집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친목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함께 이뤄낸다는 각오다. 남은 2경기 저메인믹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글 김도웅 · 사진 최우진



전주의 강남스타일을 열다

요즘 가요계의 유행은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대세다. 강남스럽지 않은 그의 '강남스타일' 외침에 코믹한 노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강남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원종합개발(주)은 전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설 전주의 강남스타일, '신원 아침도시 PENT 176'의 분양을 거의 끝마친 상태다.

전주 신시가지의 랜드마크를 꿈꾸다

신원 아침도시 펜트 176이 세워질 효자동 서부신시가지는 전주의 중심에 해당하는 계란 노른자에 해당한다. 우선 주변 환경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주변에는 마트를 비롯하여 이전을 완료한 전북도청까지 자리하고 있어 생활과 사무가 모두 충족되는 곳이다. 또한 단지 앞에 위치한 삼천천과 그 뒤로 위치한 모악산을 바라보는 최고의 조망권은 모자람이 없다.





효자동 모델하우스 분양 소장을 맡고 있는 임정수 대리는 “2년 전부터 전주에도 분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신원 아침도시 펜트 176’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뜨거운 분양 열기를 전했다. 실제 추석을 앞두고 있음에도 1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이곳 효자동 모델하우스 현장을 다녀갔다. 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는 상황과는 대조되는 분위기다. 임 대리는 “현재 분양률은 70% 정도지만 추석 이후 대부분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델하우스 분양 김경희 실장은 “‘신원 아침도시 펜트 176’ 모델하우스를 다녀간 많은 분들의 관심이 계약까지 이어졌고 176세대에게만 특혜를 드린다는 콘셉트를 통해 전주의 강남스타일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전주에서 신원종합개발(주)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함께 상승하는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모델하우스의 기대감만큼 현장에서도 한창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명신 현장소장은 “삼천 천과 모악산을 바라보는 풍경은 한강-남산의 강남 조망권을 연상케 한다.”면서 “하늘을 동경하고 가까워지고 싶었던 인간의 염원을 담은 건물”이라고 소개했다. 33층 두 건물을 스카이 브리지로 연결하여 스카이라운지에 파티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이 같





은 생각의 연장선이라고 그는 말했다. 현장 측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우길 과장은 “고층에 해당하는 33층 규모의 건물이기에 앞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진입로 및 주변 환경에도 신경 써야 하는 등 어려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영은 과장은 “펜트176은 3층에 정원시설과 놀이터 등 생활시설이 있고 4층부터 주거시설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하면서 “주차관제 시스템, 엘리베이터 호출기능

등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총 8가지의 특혜가 입주민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원 아침도시 펜트 176은 올해 9월부터 공사에 착수, 2015년 5월 31일까지 공사를 마치고 2015년 6월에 입주가 목표다. 신원종합개발(주)은 전주에 처음 진출하는 만큼 신원종합개발만의 기술력과 감각이 드러나는 전주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다. 2015년 세워질 강남스타일 트윈타워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글 김도웅 · 사진 조인기



신원종합개발 사업설명회

전주 효자동 PJT 기업 & 사업설명회 실시



- 일시
2012년 8월 16일 오후 6시~8시
- 장소
전주 신원 아침도시 PENT 176
모델하우스



신원종합개발㈜은 지난 8월 16일 전주 효자동 모델 하우스에서 '전주 효자동 PJT 기업 및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신원종합개발㈜은 기업 소개와 함께 전주 효자동 에 세워질「신원 아침도시 PENT 176」에 대한 정보를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는 전주지역 명사 초청인원 100인을 포함하여 총 140여명에 이르는 참석자들로 행사장을 가득 채우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신원종합개발㈜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아직은 생소한 전주 지역에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과 사업계획을 세워갈 계획이다. 「신원 아침도시 PENT 176」전주 신시가지에 세워질 33층 오피스텔로 신원종합개발㈜의 기술력과 디자인 감각이 동시에 드러나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오프닝 및 기업 & 사업설명회 브리핑



● 사업설명회 행사 분위기 및 고객 호응



“전주 서부 신시가지 신원 아침도시 PENT 176의 성공분양을 기원합니다.”

전 세계는 경기침체로 고심 中

미국, QE3 발표
경기부양에 나서

하반기 전 세계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유럽 경제 위기와 함께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경제를 압박해온 미국의 경기 부진, 신 경제대국으로 불리는 BRICs의 대표국 중국의 경기 연착륙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지난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경기 부양을 위한 3차 양적완화(QE3) 발표했다. 2010년 2차 양적완화 이후로 약 2년만이다.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MBS(모기지담보증권)를 무제한적 매입하는 한편, 향후 고용 시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MBS 매입 이외의 추가 자산 매입에 대한 계획이 주요 골자다. 2014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초저금리 정책도 2015년 중반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기존의

Operation Twist 또한 연말까지 유지키로 했다.

미국의 이러한 3차 양적완화 정책의 발표는 올 해 말쯤으로 시기를 점치던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주택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실업률과 고용율의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ISM 제조업 지수도 나름 선방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부양의 시기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8%대를 유지중인 실업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QE3의 단기적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도 경기 연착륙을 막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은 유럽 경제 위기와 중국의 내수 악화 등 안팎의 악재로 인해 지난 8월 2.7% 상승에 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달 수출 증가율은 24%로 여기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조짐이 보이자 1조 8000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을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하는 경기 부양책을 서둘러 내놓았지만 사회기반시설이란 특성상 직접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이은 제조업 지표의 부진으로 시장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다시 한 번 주목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QE3로 중국 위안화 가치가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달러당 6.28위안을 기록하면서 수출과 제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급격한 국내경기의 침체에

한국은행 금리재인하 시행

한국은행은 기존 3.00%였던 금리를 0.25% 내리는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금리인하 이후로 3개월 만에 또 다시 금리를 인하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이 경기 부양 우선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에게는 환율의 움직임도 중요 변수 중 하나다. 유럽과 미국,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에 이어 내수 경기까지 급격하게 얼어붙는 가운데, 미국의 3차 양적완화로 인

한 환율하락은 수출 경기를 더욱 내리 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조치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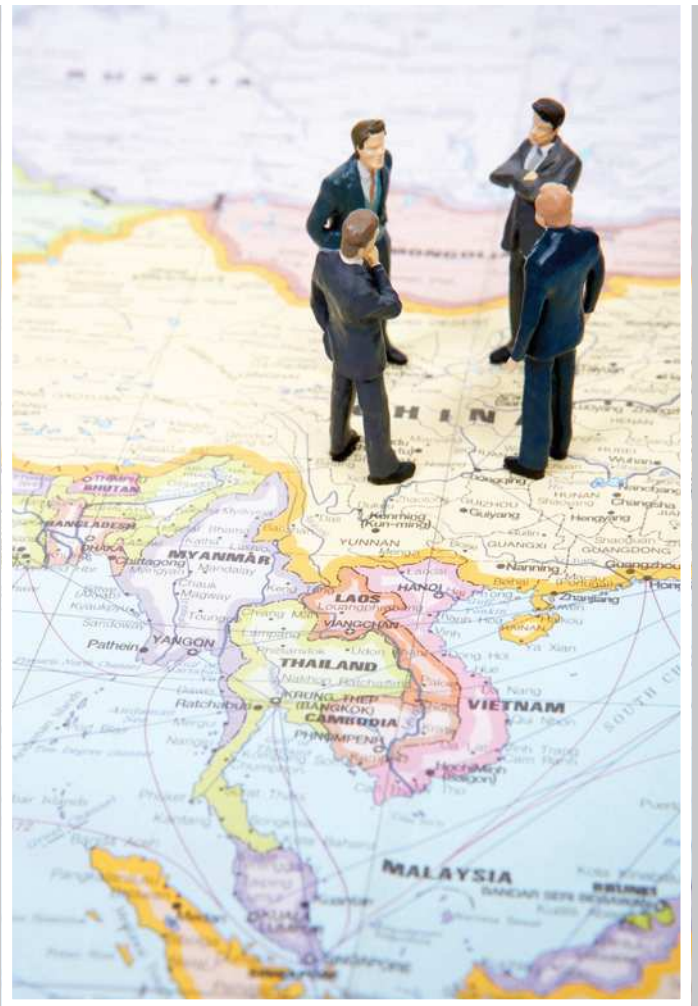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9월 우리나라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5%에서 3.0%로 수정한데 이어 이번 달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WEO)' 보고서에서는 2.7%로 한 단계 더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3.6%로 지난달 발표한 전망치 3.9%보다 0.3%포인트 내렸다. 이 같은 발표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IMF는 미국이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유로존의 위기가 이어진다면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회복과 물가 단속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일단 호의적이다. 현재 국내 물가상승률은 3%를 하회하는 2.3%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대한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대한 서민들의 시각은 다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이후에



도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와는 큰 괴리감을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태풍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식료품,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지수도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면서 생활을 팍팍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정부의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이 아직까지는 주택시장에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가계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금리인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 신용등급의 상승으로 30년 만기 국채 발행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는 등 안전한 자산 관리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 속에 원익인 모두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의 배경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국내 경기와 대외적인 뉴스에 귀 기울이는 등 현명한 자산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라두 루푸(Radu Lupu)는 투박한 무대매너, 연주 이외에는 인터뷰 및 일체 다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식 팬들 및 음악평론가들에게도 베일에 쌓인 신비한 존재로 여겨진다. 유럽에서 많은 활동하기 때문에, 이번 공연은 국내 팬들에게는 그를 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날짜 2012.11.17(토)
 장 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
 시 간 PM 7시
 관 람 료 R석 13만원 · S석 10만원
 A석 7만원 · B석 5만원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문 의 070-8680-1277
 홈페이지 <http://www.sac.or.kr>



현존하는 전설의 피아니스트
‘라두 루프’
 역사적인 첫 내한 공연

라두 루푸는 루마니아 출신 피아니스트로 현존하는 ‘거장 피아니스트’로 칭송을 받고 있다. 6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12살에 정식으로 데뷔하였으며 직접 작곡한 곡을 선보이며 뛰어난 연주 실력과 작곡 실력 모두 갖추고 있다. 17세에 모스크바 음악원에 유학하였으며, 1966년 반 클라이번(Van Cliburn) 국제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1969년 리즈 국제 콩쿠르(Leeds International Concour)등 다수 콩쿠르에서 우승하였다. 리즈 콩쿠르 이후 그해 런던에서 정식 데뷔하며 클래식계의 유명인사로 자리잡았다.

특히 1996년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음반은 라두 루푸의 독특한 서정성과 완벽한 연주 실력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하였고 2006년에는, 1995년 작고한 이탈리아 최고 피아니스트를 기리는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상(Arturo Benedetti Michelangeli Prize)’을 받아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라두 루푸는 러시아 피아니즘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19세기 독일, 오스트리아 작곡가들에 대한 해석이 그 누구보다 탁월하다. 특히 슈베르트(Franz Schubert), 브람스(Johannes Brahms),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에 대한 연주는 다른 피아니스트의 추종을 불허하며, 현대 작곡가

인 야나체크(Leos Janacek)와 바르톡(Bela Bartok)의 연주로도 정평이 나있다.

이번 첫 리사이틀에서는 전부 슈베르트의 독일 춤곡, 즉흥곡, 소나타 21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특히, 슈베르트 소나타 D960은 1996년 그래미상을 받았던 음반 수록곡이며, 즉흥곡 또한 피아노 앨범의 전설적인 명반으로 지금까지 계속 회자되고 있는 연주이다. 이번 공연 지난 2010년 건강상의 이유로 공연 일주일 전에 내한이 취소되며 많은 이들에게 그 동안의 안타까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상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를 뒤인 11월 19일에는 라두 루푸와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에는 미술계의 한 획을 그은 반 고흐의 전시회 「불멸의 화가 반 고흐 II: 반 고흐 in 파리」가 열릴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반 고흐의 안트베르펜(1885) 시기부터 파리(1888) 시기까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새로운 시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짧은 예술가의 삶이 빛나는 불후의 반 고흐 명작

다시 한국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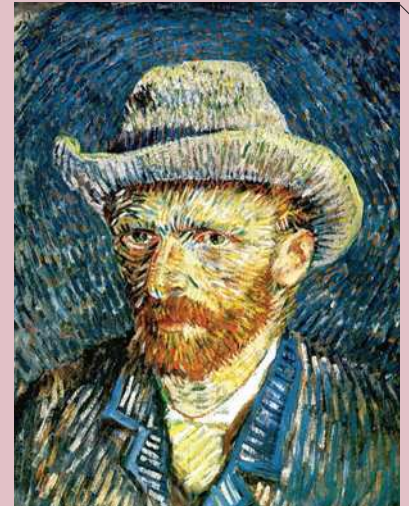
반 고흐는 창작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독특한 화법과 내면중심의 표현력으로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가장 위대한 화가로 여겨지고 있다.

영혼 속 깊은 내면까지 드러내는 강렬한 작품으로 사후 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화가로 손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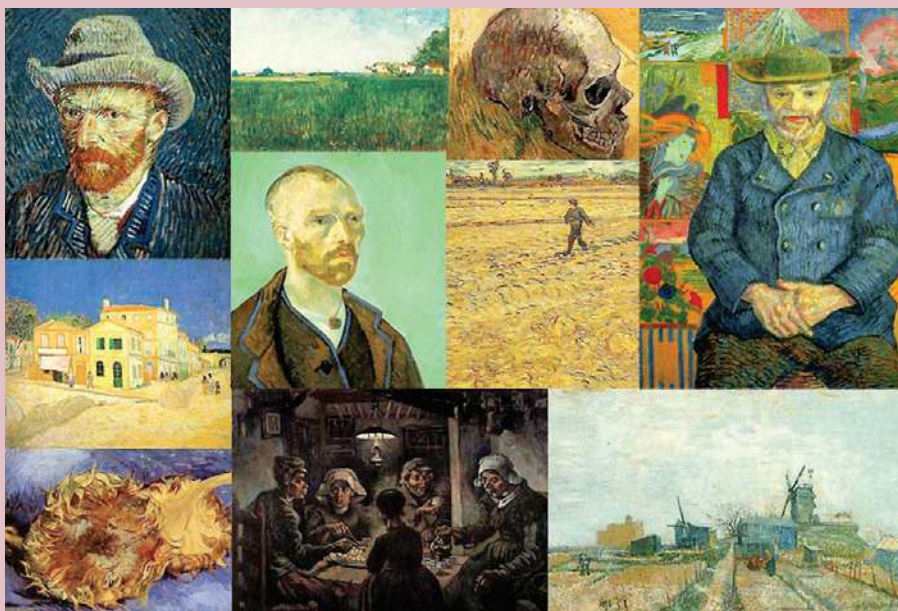
반 고흐의 밝은 화풍은 일본의 우키요에 [浮世繪] 판화에 영향을 받았고 이 무렵 자

화상이 급격히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흐는 정신병 발작을 일으켜 고갱과 다톤 끝에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리고 끝내는 권총자살을 한 불운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온 세계가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의 정열적인 작품이 생전에는 끝내 인정받지 못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작가로 인식하게 된 것은 1903년의 유작전 이후였다. 이후 그는 20세기 초의 아수파 화가들의 최



전시기간 2012.11.08(목)~2013.03.24(일)
장 소 예술의 전당 디자인 미술관 1, II, III
시 간 11:00~19:00
관 람 료 미정 (홈페이지 업데이트 예정)
문 의 02-724-2900
홈페이지 <http://www.sac.or.kr/>



초의 큰 지표가 되었다. 그의 작품은 네덜란드에 가장 많이 있는데, 40점 가까운 자화상 이외에도 《빈센트의 방》《별이 빛나는 밤》《밤의 카페》《삼(杉)나무와 별이 있는 길》 등이 유명하다.

반 고흐의 작품은 2008년 전시회에 이어 2011년 「빈센트 반 고흐 유작 국내고별 특별전」등 최근까지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어 이번 「불멸의 화가 반 고흐 II: 반 고흐 in 파리」에도 많은 이들이 전시회장을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휴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무더위를 피해 떠나는 여행도 좋고, 시원하게 즐기는 제철음식들도 좋지만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질병을 예방하지 않는다면 건강은 물론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여름철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과 예방법을 알아보자.

“
생활 속에서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뇌 건강 지식을
알아보자
”



우리의 뇌는 40여종의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한다. 이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며 동기유발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이 있는데 식이조절과 작은 습관을 기르는 것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제어하는 뇌는 가장 지치기 쉬운 민감한 기관이다.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건강과 뇌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스트레스는 뇌신경회로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교란시켜, 인지능력, 기억력, 학습능력, 판단력, 집중력이 떨어진다.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우울감이나 불면증, 식욕저하, 의욕상실, 소화불량, 호흡장애 등 다양한 몸과 마음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

동기부여에 관여하는 도파민

도파민(Dopamine)은 행동과 인식, 자발적인 움직임, 동기 부여, 처벌과 보상 등에 영향을 준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결단력이 없고 무기력해지며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욕구 조절이 어려워져 폭식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도파민이 많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페닐알라닌과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 플레인 요구르트, 아몬드, 호두, 대두, 치즈, 계란, 어패류, 닭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 같은 고단백식이 도파민 생성에 도움을 준다.

짧은 거리 또는 높이 않은 층계는 걸어서 움직여보자. 운동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도파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짧게 하루 30분의 운동으로도 도파민 합성과 방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행복전달물질 세로토닌

세로토닌(Serotonin)은 극단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기분을 좋게 해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교감 신경이 너무 지나치게 흥분된 상태를 정상으로 끌어 내려 주고, 부교감 신경이 너무 지나치게 흥분된 상태를 정상으로 끌어 내려 주는 작용을 한다.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식욕이 줄어들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세로토닌은 트립토판, 비타민 B6, 포도당으로 생성되는데 바나나에는 이 세가지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다. 바나나 외에도 치즈, 우유, 두부, 땅콩, 계란, 살코기 등에서 트립토판을 섭취할 수 있다. 하루 하나의 두유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또한 햇빛은 세로토닌 생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루 중 햇빛이 좋은 낮 시간에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 활발하게 생성되며, 낮에 생성된 세로토닌은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뇌건강은 정신건강의 기초

건강한 뇌는 건강한 정신의 기초가 된다. 우리의 기분이 말해주는 뇌 건강의 적신호를 가볍게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뇌건강, 곧 정신건강을 스스로 다스리는 방법이다.

본호가 나오기까지
함께 하신 원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원익 고건호
 이태을
 박종한

(주)원익큐엔씨 도현수
 김영수

신원종합개발(주) 현승훈
 최정미



2012 FALL
V O L . 3 2

세 계 초 우 량
기 업 을 향 해 가 는
원 익 , 원 익 인 이
함 께 하 는 사 보

(주)원익아이피에스 함창길
 문인준
 인사팀

(주)원익머트리얼즈 김광중
 송민희
 아구동호회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차은주

기획조정실 김동철
 윤지영

겨드랑이 다한증의 확실한 솔루션 - 미라드라이



냄새나는 겨땀 제거

miraDry®

A lasting solution for
excessive underarm sweat



FDA 승인 완료! KFDA 수입허가 완료!

90% Clinically effective

- 💧 Dramatic reduction of underarm sweat
- 💧 Immediate and lasting results
- 💧 Non-invasive
- 💧 Toxin-free
- 💧 Minimal to no downtime
- 💧 Quick in-office procedure